

조정철의 「탐라잡영(耽羅雜詠)」 연구

박 동 욱*

〈목 차〉

- | | |
|-----------------------------|----------------------|
| I. 서론 | IV. 제주도 부역의 실상과 그 곤욕 |
| II. 척박한 풍토와 야만적 풍속 | V. 탐라잡영의 문학사적 의의 |
| III. 탐라 관원에 대한 적의와 유배 현실 토로 | VI. 결론 |

국문초록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은 자가 성경(成卿)·대성(台城)이고, 호는 정헌(靜軒)·대릉(大陵)이다. 그는 그간 문학사에서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지만, 필자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조정철은 조선 시대 최장기 유배인으로, 29년의 유배 생활 중에서 27년 동안을 제주에서 적거(謫居)하였다. 그의 문집인 『靜軒瀛海處坎錄』은 유배의 체험만을 다루고 있으니 드문 경우라 할 만하며, 그중 「耽羅雜詠」 33수는 숫자나 내용면에서 제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제주의 풍속과 풍토에 대한 기록은 작가의 제주에 대한 시선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조정철은 풍속과 풍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제주 관원들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남겼다.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실제 유배객이나 제주 민중들이 관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 민중들은 진상품을 마련하느라 가혹할 정도로 진상(進上)과 부역(負役)에 시달렸다. 그는 이러한 백성들의 신고(辛苦)를 외면하지 않고 제주 백성들의 실상을 밝히려고 애썼다.

* 한양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 sanwoon@hanmail.net

보통의 제주 관련 연작시에서 제주를 경외와 호기심으로 다루었다면 조정철의 경우 온전히 실제 사건에 근거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입도인(入島人)의 시선에 치우쳐 제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주제어 : 조정철(趙貞喆), 정현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유배(流配), 조선후기(朝鮮後期), 제주도(濟州道), 잡영(雜詠)

I. 서론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은 자가 성경(成卿)·태성(台城)이고, 호는 정헌(靜軒)·대릉(大陵)이다. 그는 그간 문학사에서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지만,¹⁾ 필자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선 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의 유배 한시를 분석하였고²⁾, 김영수 목사를 축으로 한 조정철과 조완(趙皖)의 엇갈린 운명을 다룬 글을 썼으며³⁾, 그의 문집인 『靜軒瀛海處坎錄』을 중심으로 유배객의 생활 모습을 살펴본 바 있다.⁴⁾

조정철은 조선 시대 최장기 유배인으로, 29년의 유배 생활 중에서 27년 동안을 제주에서 적거(謫居)하였다. 그의 문집인 『靜軒瀛海處坎錄』은 제주도

- 1) 조정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양순필 교수의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건국대 박사 학위 논문, 1982)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주도 유배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문중에서 나온 자료집인 조원환의 『양주조씨사료선집』(보경문화사, 1994)도 매우 많은 자료들을 충실히 정리해 놓고 있다. 최근에는 조정철의 문집이 김익수에 의해 『정현영해처감록』이란 제목으로 제주문화원(2006)에서 완역 출간되었다.
- 2) 줄고,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17집, 2007.
- 3) 줄고,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 50집, 태학사, 2010.
- 4) 줄고,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현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7호, 2010.

유배 시기 중 1777년에서 1788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문집 전체가 유배 체험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드문 경우라 할 만하다. 여기에는 유배의 실상이나, 제주도의 풍토와 풍속이 다른 기록보다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그중 『耽羅雜詠』 33수는 숫자나 내용면에서 제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자료이지만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연작시 중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으로는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乙酉二月二十八日, 宿稷山之成歡驛, 濟州貢藥人金克修亦來, 因夜話, 畧問風土物產, 遂錄其言, 爲賦毛羅歌十四首』(1465년)이다. 제주에서 약을 진상하는 김극수(金克修)를 만나서 그곳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또, 최부(崔溥, 1454~1504)의 『耽羅詩三十五絶』(1487년)은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1653년) 안에 수록되어 전해지다가, 이증(李增, 1628~1686)이 『남사일록(南槎日錄)』(1681년)에 재수록하였다. 이 작품은 최부가 제주도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耽羅雜詠』 22수를 남긴 조관빈(趙觀彬, 1691~1757)⁵⁾은 조정철의 작은 할아버지이다. 조정철의 문집에 조관빈의 시에 차운한 시가 많이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그가 조관빈의 시를 숙독하고 적잖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철이 동 제목의 『耽羅雜詠』을 지은 사실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준다.

그밖에 남구명(南九明, 1661~1719)⁶⁾의 『補毛羅歌』, 『重補毛羅歌』, 『又補毛羅歌』, 이에연(李禮延, 1767~1843)⁷⁾의 『耽羅八詠』,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耽羅十謠』, 『耽羅十景』,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濟州雜詠』(22수) 등을 들 수 있다.

5) 김윤중, 『梅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6) 김영길,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7) 이에연(李禮延, 1767~1843):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정(聖庭), 호는 녹하(麓下). 180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830년 3월 이행교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1832년 2월에 파직되었다.

조정철의 『耽羅雜詠』은 계기적 연속성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충실하게 구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耽羅雜詠』의 소재와 구성을 중심으로 제주 관련 연작시로서의 가치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정철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한편, 더불어 제주 관련 연구에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척박한 풍토와 야만적 풍속

제주도의 풍토와 풍속은 육지와는 사뭇 다르다. 대개 제주도와 관련된 기록들은 이러한 이질적 풍토와 풍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만큼 철저하게 타자화 되어 주변부로 인식되어 왔다. 변화무쌍한 섬 특유의 풍토는 육지에 길들여진 몸과는 애초부터 맞을 수가 없었고, 고유하고 순수한 풍속 또한 야만이란 이름으로 단죄될 뿐이었다. 제주는 철저히 본도인(本島人)의 시선이 아닌 입도인(入島人)의 시선으로 그려졌다. 입도인은 관장(官長)과 유배인(流配人)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들에게 제주는 정착할 곳이 아닌 그저 잠시 머물 곳에 불과했다. 조정철은 『耽羅雜詠』 뿐 아니라, 문집 곳곳에서 풍토와 풍속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가 본 당시 제주의 풍토와 풍속은 어떠했을까?

[21]

바다 속 토양이라 푸석하고 건조하여,
밭갈이 안 깊으면 제때에 일찍 자라지 않누나.
곡식을 심고서도 우마로다 밟게 하니,
척박한 땅 곳곳마다 비로 쓴 듯 평평하네.⁸⁾

8) 原註: 島中土性淨燥, 自春耕田而不深墾, 再耕三耕. 至芒種節後十許日, 始落種, 止於初伏後四五日. 而每於稷粟播種之後, 卽驅屯牛馬百餘匹, 亂蹠之, 平如掃壑如道. 然後始

海中壤土自浮燥 耕不爲深時不早
播穀仍教牛馬踏 磽田處處平如掃

제주의 풍토가 척박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건(李健)의 「濟州風土記」에 “섬 안의 토지는 모두 모래와 자갈이라 전답이 매우 척박하다 [島中土地, 皆是砂磧, 田畝甚瘠]”라고 했고, 정조(正祖)의 『弘齋全書』 51권, 「策問 四」, ‘耽羅’에 “토양은 푸석하고 건조하여 매번 새 밭을 일구어야 하고, 질구질하며 주고받는 잔잔한 옛 노래는 이곳 풍토기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다.[土性浮燥, 從每每之新田, 杵歌互答, 和摻摻之舊曲, 此風土記之所特書也]”라고 하였다. 화산회(火山灰)로 된 흙이어서 착근하기 힘들므로 파종을 할 때 말 때를 몰아 밭을 밟는 밭 밟기[踏田]의 풍속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식수 이용도 매우 불편해서⁹⁾ 빗물을 받아서 마시는데 이것을 천수 또는 봉천수라고 하였다.¹⁰⁾ 이러한 척박한 제주의 풍토는 토착 주민 보다는 외지인(外地人)에게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20]

담라는 당연히 말과 소가 사는 섬이라,
백성 성품 때때로 습관과 같게 됐네.
생콩잎에 밥 싸서는 단번에 먹으니,
누가 장차 왕의 교화로 오랑캐 풍속 교화할까.¹¹⁾
毛羅自是馬牛島 民性時時習與同
豆葉生包飯頓食 誰將王化變蠻風

放而之他田。過三四日，坼甲而生。若不踏蹴，則種子乾燥，着根不得，篇內紀實。

- 9) 김정(金淨), 『濟州風土錄』에 “漢學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而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 [凡卜物多女負行] 取多汲也.”라고 나온다.
- 10) [22] 蹄灣行潦雜蟲并, 從古旋城水不清. 安得借來疏勒劍, 飛泉湧出濟蒼生. 原註에는 “旌義無泉, 惟以潢池奉天水資飲, 而水蟲相雜, 故紀實.”이라 나온다.
- 11) 原註: 島人, 自五月至七八月, 以大豆小豆葉豆葉生, 包飯頓食, 莫知腥臊之味, 以作無上之饌. 農飯所須專靠于此故云.

이질적인 먹을거리와 의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생콩잎에 밥을 싸서 먹는 풍속은 오랑캐의 것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육지에서 먹던 음식과 달라 끼니때마다 힘든 식사가 아무래도 유배객에게는 더욱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음식 문제는 조정철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에는 오이 국[瓜羹], 보리밥[麥飯], 채소를 넣은 콩잎 국, 조밥, 보리밥, 멸건 국[麤羹], 현미밥[糲飯], 풀뿌리[草根], 나무열매[木實], 매조밥[糲糲], 탁한 물[濁飲] 등 열악한 음식에 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그나마 이러한 음식조차 늘 부족했는지 그의 시에서는 굶주림에 대한 토로가 자주 등장한다.¹²⁾ 이건(李健)의 「濟州風土記」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으로 조밥[粟飯]을 들었을 만큼, 입에 맞지도 않고 또 부족했던 먹을거리의 이중고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17]

잠녀의 옷은 한 척쯤 짤막하여
 알몸으로 너른 파도에 자맥질하네.
 요즘에는 부역은 무겁고 고기 잡기 어려운데
 예사롭게 몇 군데 관아에서 매질하네.¹³⁾

潛女衣裳一尺短 赤身減沒萬頃波
 邇來役重魚難得 鞭扑尋常幾處衙

의복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하게 비판을 하였다. 물질하는 잠녀는 물론이거니와, 물 길는 소녀(少女)¹⁴⁾, 성 안의 일반 여성¹⁵⁾, 정의현의 관리 등의 옷차림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성들의 복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 않은 것과 치마를 입지 않은 것을, 관리들의 복식에 대해서

12) 줄고, 앞의 글, 2010, 384p 참조.

13) 原註: 潛女以布爲小褲子, 遮其陰, 俗謂小中衣. 赤身出沒海中.

14) [18] 旌城少女值朱炎, 下不爲裳上不衫. 十字街頭闖闊地, 負瓶汲水語喃喃. 原註에는 “汲水女, 以大瓶納竹筐, 負而行”이라 나온다.

15) [19] 太守衙門自紛紜, 吏民奔走無朝暉. 城中女子喪廉耻, 來往尋常不着裙.

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¹⁶⁾

위의 시에서는 우선 잠녀가 알몸으로 자맥질하는 모습을 그리고서, 부역 때문에 고단한 현실을 아울러 적시했다. 알몸으로 바닷물에 들어가 작업하는 잠녀의 모습과, 과도한 부역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은 매우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23]

옛날에 충암이 또한 한 말이 있었으니,
 섬사람들 청탁함이 절로 가짓수 많다 했네.
 염치와 의리가 무엔 줄도 모르고서,
 사소한 일에도 예사롭게 뇌물 주길 분주히 했네.
 在昔冲庵亦有言 島人請囑自多門
 不知廉義爲何事 毫縷尋常贈賂紛

[原註] 충암의 『풍토록』에 이르기를, “품관(品官)에서 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각자 어부지리를 일삼아서 작은 일이라도 모두 뇌물을 주는 일이 있으니, 염치와 의리가 무슨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제압하고, 거친 사람은 인자한 사람을 겁박한다. 관원 중에 탐욕스러운 사람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청렴한 사람은 우월하다고 도리어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오히려 이 풍속을 고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송사나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으레 뇌물을 끼고 가니 그러므로 사실을 기록한다.¹⁸⁾

16) [26] 校吏奔趨太守庭, 衣冠種種使人驚. 黃毛笠子獺皮帽, 帶用生麻繩作纓. 原註에 “旌義人, 無論儒鄉校吏下隸賤卒, 恒着黃牛毛氈笠, 地獺皮帽子. 甚至於入直校吏, 以此貌樣, 出入於縣監聽事之堂. 而若其白狗皮袴子·黃狗皮周衣, 比之絃美之服. 不意同文之世, 有此荒絕之地, 又比關北. 不知落下幾十層, 不勝慨然, 輒此紀實.”이라 나온다.

17) 김정(金淨), 『濟州風土錄』 등을 위시한 여러 문헌에 나온다.

18) 冲菴風土錄曰, 自品官至賤隸, 各以漁利爲事, 毫縷, 皆有贈賂,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劫仁. 官員之貪濁者, 不以爲怪, 廉白者, 反笑其迂云云. 今猶此風不改, 一訟一事, 輒挾賂以行, 故紀實.

이 시의 원주(原註)는 김정(金淨)의 『濟州風土錄』 19)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김정의 책은 최초의 제주 풍토지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후 제주에 대한 기록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위의 시는 그중에서 관리의 부정을 다루고 있다.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 탓에 관원들의 부정이 만연되기 쉬웠는데, 그것은 제주가 내륙과 공간적으로 단절된 폐쇄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섬에서 벌어지는 부정(不正)과 학정(虐政)은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으니 관리의 월권이 자행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김상헌(金尙憲)의 『南槎錄』에도 “한 번 서울에 가서 조금이라도 괴로운 사정을 위에 알리고자 원하지만, 수령이 자기의 악행(惡行)이 알려짐을 싫어하여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를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²⁰⁾라고 하여 제주도의 특수성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16]

탐라는 멀리 바다 속에 있는데,
남자 적고 여자 많음 예나 지금 똑같구나.
목동이나 농군들도 초가집 아래에서,
처와 첩 두는 것이 저절로 풍속 됐네.
耽羅遙在海之中 男少女多今古同
牧子畦丁蔀屋下 一妻一妾自成風

제주의 여초(女超) 현상은 연원이 오래되었다. 조정철은 목자(牧子)나 농군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조차도 축첩(蓄妾)을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 시는

- 19) 홍정표,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소고」, 『교육제주』 제28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제22집, 안암어문학회, 1981;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유기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제7집, 대동한문학회, 1995; 김상조,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과 규창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연구」, 『대동한문학』 제13집, 대동한문학회, 2000.
- 20) 皆願一至京城, 少達悶迫之情, 而守令惡其流播已惡, 陪持進上者外, 禁不許出.

다른 시에 비해서 원주(原註)가 상당히 간략한데 짧게 남녀의 인구수만 기록했을 뿐이다.²¹⁾ 그러나 『탐라잡영』의 전체적 기조를 바탕으로 보건대, 이런 풍속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는 “아무리 형편없는 남자라도 아내를 여럿 얻어서 많으면 8~9명에 이른다[雖殘疾男子, 而娶婦多至八九]”라고 하였고,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에서도 “비록 걸인이라도 처첩을 거느린다[雖行乞者 竝畜妻妾···]”라고 했으니, 제주의 처첩(蓄妾)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풍속의 이면을 살펴보면 퇴폐적인 풍속으로 단죄하기에는 힘든 면들이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온다. “배가 침몰하면 살아서 생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 년이면 적어도 백여 명이나 되어서, 여자가 많고 사내는 적어 촌마을의 여자들은 제 짝이 드물었다. 그래서 수자리 온 원병(援兵)이 들어오면 여자들이 곱게 단장하고 기다렸다가 술을 권하고 집으로 맞아간다.”²³⁾ 실제로 섬의 특성상 남자들은 어로(漁撈)에 종사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이었고, 그 결과, 항상 남자의 숫자가 부족했으니 자연스레 첩(妾)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퇴폐적인 풍습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본도인(本島人)에 대한 입도인(入島人)의 폭력적 시선에 다름 아닐 것이다.

[27]

평생토록 미워했네, 담파가 죽은 뒤에
변화하여 남방의 요망한 풀 된 것을.

21) 原註: 時男口爲五萬餘, 女口爲七萬餘.

22) 대부분의 기록에서 처첩(妻妾)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상헌(金尙憲)의 『南槎錄』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이 문제야말로 도서(島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서, 내륙의 풍습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23) 濟州男丁舟沒而不返者, 一年不下百餘人. 故其地女多男少, 村巷之女, 鮮有伉儷. 每歲三月, 援兵別赴防之入也, 女輩凝粧, 携酒來待於別刀浦上, 舟入浦, 則勸酒相狎, 迎至其家, 八月罷防而去也, 泣涕追送.

섬의 풍속 염치가 중한 줄 모르고서,
 예사롭게 만나는 곳에서 으레 꼬리 치네.
 生平赤憎淡婆鬼 化作南方一妖卉
 島俗不知廉恥重 尋常逢處輒搖尾

[原註] 세속에 전하기를 음란한 부녀인 담과가 죽어서 변화하여 남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하였다. 탐라의 풍속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부형과 나이가 많은 노인들 앞에서도 오히려 긴 담뱃대를 길게 빼어 물고, 사람을 만나도 염치를 불구하고 손을 벌리고 담배를 달라고 빌어서 그러므로 운운한 것이다.²⁴⁾

과문(寡聞)한 탓인지 제주에 대한 다른 기록 중에서 담배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원주(原註)에 나와 있듯 어린 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리는 행동에 대해 주로 비판을 했다. 담배를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무례(無禮)를 지적한 셈이다.²⁵⁾ 특히 장유(長幼)와 남녀(男女)의 분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혹독히 비판을 하였다.

그의 기록에서 이질적인 풍속이나 풍토에 대한 경외나 호기심은 일체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시각은 대부분의 제주 관련 풍토지와 다를 바 없다. 척박한 풍토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의복과, 먹을거리를 포함한 풍습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탐라잡영(耽羅雜詠)」뿐만

24) 諺傳淫婦淡婆死，而化作南草，迷惑天下人。耽羅之俗，無人不吸草，父兄長老之前，猶橫竹，而逢人不顧廉恥，開手丐乞故云云。

25) 정은(鄭蘊)도 위아래 구분이 없는 풍속을 질타하고 있다. 「文簡公桐溪先生年譜」, 『桐溪集』에 “대정현의 백성들이 처음에 장유(長幼)의 차례와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었는데, 선생이 구별하여 늙은이가 먼저 하고 젊은이가 뒤에 하게 하고, 이른바 향유사(鄉有司)라는 자를 대우하여 하리(下吏)와는 그 자리를 따로 하게 하였다. 또 연소한 자를 가려서 문자를 가르치고 인륜을 설명하니, 이로부터 장유와 상하가 조금씩 조리가 있게 되었다.[靜民初無長幼之序，上下之分，先生區而別之，老者先之，少者後之，待其所謂鄉有司者，與下吏別其座。又擇年少，教以文字，陳以人倫，自是，長幼上下稍有條理]”라 나온다. 번역은 고전번역원을 따른다.

아니라, 그의 시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²⁶⁾ 제주의 풍속과 풍토에 대한 조정철의 관점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필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제주의 풍속과 풍토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탐라 관원에 대한 적의와 유배 현실 토로

제주 유배에서 지방 관장이 유배객에게 가지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²⁷⁾ 어떤 관장(官長)을 만나느냐에 따라 유배객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정철은 문집을 기록한 기간 동안에 총 8명의 제주 목사를 겪게 된다.²⁸⁾ 고단한 유배 현실에서 그를 더욱 괴롭혔던 것은 바로 지방관의 횡포였기에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였다. 풍토와 기후가 그의 육신을 괴롭혔다면, 지방관의 감시는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할 수 있다.

[5]

해는 신축년(1781년)이라 8월이 되어
궁궐에서 특별히 시종을 파견했네.

26) 「歎島中人心 漫書古體」, 「歎島俗」 등이 대표적이다.

27) 홍순만(1991).

28) 제주 목관아[<http://mokkwana.jejusi.go.kr>]에는 제주목사의 명단이 부임과 퇴임 일자가, 제주 역사문화예술[<http://culture.jeju.go.kr>]에는 제주목사와 관관의 행적이 잘 정리되어 있어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 조정철 문집은 1777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때까지 총 8명의 제주 목사를 겪게 된다. 그를 담당했던 제주목사의 성명과 재임 기간은 다음과 같다. 김영수(金永綏, 1778년 12월~1781년 3월), 김시구(金耆耆, 1781년 3월~동년 7월), 이양정(李養鼎, 1781년 7월~1782년 1월), 이문혁(李文赫, 1782년 1월~1783년 4월), 엄사만(嚴思晩, 1783년 6월~1785년 5월), 윤득규(尹得逵, 1785년 5월~1786년 4월), 이명준(李命俊, 1786년 4월~1788년 3월), 홍인묵(洪仁默, 1788년 3월~ 동년 10월).

청렴과 탐욕, 선함과 악함은 오히려 도의시키고
 죄인을 지키는 새 법만을 만들었네.²⁹⁾
 辛丑之年建酉月 九重特遣侍從來
 廉貪善惡猶餘事 防守罪人新法開

그는 정의현감인 이우진(李羽晉)에 대한 불편한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정철은 유배 생활 대부분을 정의현(1782년~1790년 9월)에서 보냈으니, 그곳의 책임자였던 이우진과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많아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진은 김시구(金耆耆)³⁰⁾의 후임으로 제주목사 이양정(李養鼎)과 함께 부임하였다.³¹⁾

그가 부임한 이후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위의 시에서 보듯 새로운 법을 만들어 유배객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감시했을까? 다음의 시들에서 그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29) 原註: 辛丑秋, 以耽羅罪謫事, 特命選部, 易三邑四長吏, 俱以文武有資歷者差遣. 前正言李羽晉, 授旌義縣監, 到官以來, 多設新法防守罪人. 而至於生民疾苦, 則全不顧, 念上官, 則以防守爲上上之績. 列縣則又效尤而則之. 余之到旌, 在羽晉, 已遞之後, 而人猶罵之, 故篇中云云.

30) 김시구(金耆耆, 1724~179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자는 몽휴(夢休). 17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그해 보안도찰방(保安道察訪)으로 나갔다가 곧 지평(持平)으로 승진하였다. 1758년 경양도찰방(景陽道察訪)으로 좌천되고, 1762년 이후 장령(掌令)·돈녕부동지사(敦寧府同知事)·도총부부총관(都總府副總官) 등을 역임하였다. 1767년 전사관(典祀官)이 되어 관북(關北)에 파견되었으며, 1772년 승지를 지낸 뒤 주로 외직으로 나가, 1781년 제주목사로 있을 때 전라도관찰사 박우원(朴祐源)의 밀계로 파직되었다. 성리학에 밝았다.

31) 이때의 정황은 다음의 시에 자세히 실려 있다. 「七月十二日夜, 濟州牧使李養鼎判官李亨默大靜縣監李亮載旌義縣監李羽晉等, 官船一時來泊. 蓋因金耆耆密啓, 欲行按查以明虛實, 命以文武有資歷者, 易三邑四長吏, 且命遣繡衣故也. 宣傳官鶴鳴時, 來拿耆耆者十三, 味爽判官先到任, 急行徒流點考, 卽地拿余及他罪謫, 并着枷下獄後, 判官親到獄中, 申飭防守之嚴, 操縱之酷, 比金吾不啻倍徙撫, 躬自悼不勝, 悲冤口吟一絶」

[6]

유배인 심한 단속 정의현이 최고이니,
 기거와 음식을 매일 세 번 살핀다네.
 옷 한 벌과 먹을거리 하나도 오히려 죄가 되니,
 태수 있는 뜰 안에는 교리(校吏)가 어리석네.³²⁾
 操切流人旌義最 起居飲食日三窺
 一衣一食猶爲罪 太守庭前校吏癡

유배객을 혹독하게 취급한 곳은 정의현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의현감 이우진이었다. 아랫사람들을 풀어 서 하루에 세 번씩 유배객의 거처를 조사하여 관아에 보고하게 만들어, 따스한 옷이나 배불리 밥을 먹을라치면 죄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수 주인 집 근처 다섯 집으로 오가작통(五家作統)을 만들어 감시하게 했으며³³⁾, 갓을 쓰는 것도 금지하고 패랭이에 새끼줄을 매게 하고서 점고(點考)를 실시한 것도³⁴⁾ 다름 아닌 이우진이었다.

[15]

수많은 산의 말이 삼장(三場)에 줄지었으니,
 옛날에 어떤 사람 이 담을 쌓았던가.
 듣건대 근래에 김영수 목사가
 백성 편케 했던 계책 하나 되려 아득해졌네.
 萬千山馬列三場 在昔何人築此墻
 聞道邇來金永綬 便民一計却蒼茫

- 32) 原註: 自官定豪校悍吏, 名曰防守監官色吏. 日三摘奸於罪謫之所, 以有事無事告官. 一如邊境巡更之例. 而煖衣飽飯爲一大罪, 縣監李羽晉所勘云.
- 33) [7] 伍統民家四作隣, 六人防守一流人. 初來借問旌城吏, 新法知從李正言. 原註에 “罪謫保授外, 伍家作統, 爲東西南北四切隣, 及統首俾守一罪人, 譏察動靜而告官, 縣監李羽晉所勘之法也.”라 나온다.
- 34) [8] 吾罪由來吾自知, 徒流點考呼名時. 縣官不許衣冠立, 半破平涼索帶垂. 原註에 “濟州大靜罪人, 皆着笠應點, 而旌義則禁之, 皆戴平涼子帶索, 此亦李羽晉所設也.”라 나온다.

한라산에 산마(山馬)를 풀어놓았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운이 나쁘면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얼어 죽기까지 했다. 1779년 김영수(金永綬) 목사가 간장(間場)을 설치하여 말을 효율적으로 관리케 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 김영수와 박천형(朴天衡)³⁵⁾ 두 사람이 모두 다 조정철과 구원(舊怨)이 있다는 점은 앞 선 글에서 밝힌 바 있다.³⁶⁾ 원주(原註)를 살펴보면, 김영수는 간장(間場)을 설치하였고, 반면에 박천형은 간장(間場)을 훼손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당시 관원들의 포폄(褒貶)을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기술했다.

[28]

갑신년의 흉년을 차마 어이 말하리오.

3만 명의 생명 중에 절반쯤 죽어갔네.

하늘 속인 도백(島伯)은 능히 무죄 되었거늘

스스로 신명 있어 곁에서 질정하리.

忍說甲申歲歉荒 生靈三萬半銷亡

謾天島伯能無罪 自有明神質在傍

제주목사 이명운³⁷⁾을 둘러싼 이야기에 6편을 할애하여 작성한 듯 비판하고 있다. 이명운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오기 전에 목사를 지낸 인물이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조정철은 이명운을 집요하게 비난하였다.

35) 박천형(朴天衡, 1737~?): 본관은 밀양(密陽). 1773년 문과에서 급제하여 승정원승지를 지냈다. 1781년 6월에 제주순무안사시제어사(濟州巡撫按查試才御使)로 제주에 부임하였다.

36) 줄고, 앞의 논문, 2007.

37) 이명운(李明運)은 경기도의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재임 중 동년 7월, 이달(李鎰)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입하고 1765년 6월에 떠났다. 1764년 가을에 홍수가 터져 민가가 떠내려가고 곡식에 해를 끼쳤다. 재임 중 한때 탐욕을 일삼았으며 또 이재민을 진휼(賑恤)하지 않아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1765년 큰 기근으로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으니 영조 임금의 듣고 크게 놀라 제문을 스스로 짓고 제주목사로 하여금 제단을 마련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명운은 1764년 제주에 큰 홍수가 일어나자, 중앙에 평년처럼 계문(啓聞)을 올려 진흙을 베풀지 않아서, 1765년 봄에는 굶어죽은 백성들이 만 명이나 되었다.³⁸⁾ 또, 학정(虐政)을 일삼아 온갖 물품을 거두어 갔으며, 나무를 닦치는 대로 베어다가 그릇을 만들어 벌거숭이산이 될 지경이었다.³⁹⁾

[29]

듣건대 전왕조의 유절도사는
백성의 아픔들을 궁궐에 호소했네.
신의 마음은 오직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였으니
자기 몸의 화복을 감히 스스로 돌아보았으니.

聞道先朝柳節度 將民疾痛天門訴
响濡濟活維臣心 禍福於身敢自顧

이명운의 후임으로 유진하⁴⁰⁾가 1765년 여름에 부임하자 이미 많은 백성들이 굶어서 죽었다. 유진하는 6월에 계문(啓聞)을 올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죽을 선조치하여 먹였다는 이유로 8월에 파직되었다.⁴¹⁾ 유진하의 후임으

38) [28]번 시 原註에 “英宗甲申, 耽羅一島, 以大水爲赤地, 牧使李明運, 謾以平年啓聞, 準捧徭役, 不設賑恤. 乙卯春, 民之饑死, 以萬爲計, 至今遺臭故云云.”이라 나온다.
39) [32] 木無粵槩馬無尾, 民口嗷嗷尙憤悱. 況使蒼生溝壑填, 誰將爾罪告神鬼. 원주(原註)에 “李明運, 大貪饕, 浚民膏澤, 蟻珠瑋珊瑚鸚鵡牛黃鹿茸鬚子涼簾之屬. 不啻累鉅萬計, 民產, 甚至蕩竭, 猶未充谿壑之慾. 公私屯馬尾鬣盡割, 山木之老而有紋者, 幾皆所取, 或作板子, 或造器皿. 擎山一面山柚榧子龍木佳柴二年等珍材古木, 殆乎濯濯, 島人舉欲食肉. 尹公到營聲明運之罪, 其啓中有木無粵槩馬無全尾等句語. 英廟大震怒, 竄明運于鍾城, 以柳鎮夏授湖南兵馬節度使. 聖斷廓然, 萬姓歡抃, 而島民以明運之不誅, 至今憤排云, 故紀實.”라 하였다.
40) 유진하(柳鎮夏, ?~?): 조선조의 무신. 영조 때의 제주목사. 1765년 6월, 이명운(李明運)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입하고 동년 8월에 파직되어 떠났다. 『王朝實錄』에 의하면 1765년 7월에 전 교리 윤서동(尹蓍東)을 발탁, 제주목사로 삼아 임금께서 얼굴을 맞대어 타일러 보냈다. 담라에서 보리 흉작으로 기근을 알려 왔는데, 이때 목사 유진하(柳鎮夏)는 매사에 능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체시킬 뜻을 가진 것이다. 친히 도민을 위로하는 글을 지어서 새 목사로 하여금 선유(宣諭)하도록 하였다.
41) [29]번 시 原註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新牧使柳鎮夏, 以乙酉夏莅, 任民之墳壑者已大半. 鎮夏以六月設粥先施賑賑而後啓. 人或以不待朝家處分, 先自設賑, 必罹譴責言之

로는 윤시동⁴²⁾이 부임하여 한편으로 진휼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에 사실을 보고하였다. 녹봉을 덜어서 보민고(補民庫)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가중된 요역의 고통을 덜어주었다.⁴³⁾ 윤시동이 이명운의 죄를 중앙에 보고하자 영조가 크게 놀라서 직접 제문을 짓고 목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⁴⁴⁾

[33]

윤목사가 이목사의 죄를 나열하기를,
 지난 일 거울삼고 닥칠 일 징계함은 만고의 말이도다.
 재처럼 날려 비록 천 년 가는 공안(公案)에선 사라지게 되나
 백성들 입이 아직 남아 있으니 너는 또한 어리석구나.
 尹侯臚列李侯罪 愆後懲前萬古辭
 灰飛縱去千年案 民口尙存爾亦癡

윤시동은 이명운의 죄를 준열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1781년에 이명운의 서자 유겸(儒謙)이 목사 이양정(李養鼎)의 막하로 섬에 들어와서 12월에 갑작스레 영리(營吏) 등을 불러놓고 상감의 말을 사칭하여 이명운과 관련된 기록

柳曰, “救活生民, 惟吾之責, 豈忍畏罪而使彼浮黃之赤子 死亡盡劉乎?” 遂發倉, 响濡啓上. 明運從中斡旋, 授湖南兵馬節度使, 柳以此八月被拿, 民至于今嘖嘖.

- 42) 윤시동(尹著東, 1729~179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자는 백상(伯常)이며 호는 방한(方間)이다. 1765년 교리(校理)로 재임 중 동년 8월, 목사 유진하(柳鎭夏)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766년 6월에 노모 봉양 관계로 사임하고 떠났다. 재임 중 선비를 예의로써 대접하고 공무를 청렴결백하게 집행, 사임하고 본도를 떠날 때 본도의 물건을 하나도 실어가지 않아서 백성으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선정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 편저로는 「饗禮合編」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 43) [30] 耿羅一夜福星臨, 學士仙舟渡海濶. 仍使蒼生安衽席, 仁恩善政浹人深. 原註에 “李明運, 以年豐啓聞於在州之時, 提奏於納符之日, 上少紓南顧之憂. 柳節度, 六月設粥之啓, 忽到, 英廟大以爲駭, 命拿問虛實. 仍問大臣可鎮南方者, 三四箇劄. 以弘文館校理尹公著東擢通政階, 特授濟州牧使. 尹公到營, 一邊設賑一邊啓聞, 聲明運之罪, 使萬姓安堵. 且捐俸而設補民庫, 省生民疊徭之苦. 民至今愛戴之, 故紀實.”이라 하였다.
- 44) [31] 肉骨寧忘聖祖恩, 宸心惻怛體乾坤. 煌煌寶翰天門下, 酌爾耽羅餓死魂. 原註에 “李明運謾啓, 不設賑之後, 島民之餓死者殆至萬數. 柳鎮夏六月設粥, 尹公以特簡南鎮, 以李之罪始啓聞, 英廟大驚, 親製祭文, 令牧使, 設壇於州之南門外, 酌餓死魂, 俾慰幽冥之恨. 恩至渥也, 德至厚也, 島民至今感泣故云云.”이라 했다.

들을 모두 불사르게 하였다.⁴⁵⁾ 위의 시에서는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관아의 기록에선 사라져도 이명운의 죄를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이명운, 유진하, 윤시동⁴⁶⁾, 이양정 등 네 명의 목사들이 등장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자세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정철의 기록이 아니면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개인적인 사정(私情)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주사 연구에는 의미가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문집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아주 풍부한 원주(原註)를 부기해 놓아 이해를 돕고 있다. 그는 실명으로 자세한 사건의 정황을 기록해 내려갔는데, 주로 제주 목사들이 그 대상이었다. 실정(失政)이나 학정(虐政)에는 준열한 꾸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유배객의 신분으로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임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IV. 제주도 부역의 실상과 그 곤욕

제주도는 굴, 약재류, 해산물, 우마류(牛馬類)까지 여러 가지 부역에 몸살을 앓는 지역이었다. 백성들은 온갖 부역에 종사하며 진상품을 때에 맞추어 대느

45) [33]번 시에 原註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尹公聲罪明運之啓, 辭嚴義直, 可使千百載下, 貪官汚吏, 知所懲悛. 今上辛丑, 明運之庶子儒謙, 以牧使李養鼎幕下入島, 十二月忽招營吏等, 宣言曰, “上筵教大臣曰, ‘乙酉濟州事, 實緣癘疫, 非凶荒也, 李明運與柳鎮夏, 有隙爲鎮夏所誣, 令實錄廳勿書明運事.’ 又賜箇筒一部以表上心. 本營膽錄, 乙酉六月凡關吾翁事事, 上之道, 不可一刻留置, 一并燒火也.” 營吏等持納膽錄, 儒謙投之回祿. 千年之案, 都歸灰燼, 可惜. 況儒謙所傳上教, 焉知非中間做出, 眩惑島民之計耶. 然島人有知識解文字者, 無不誦尹公之啓, 而又或有膽置者, 則儒謙雖去營中膽錄, 而民口則不可遏, 故聊以紀實, 可比諸史也.

46) 이명운(李明運) (1763년 7월 ~ 1765년 6월)
유진하(柳鎮夏) (1765년 6월 ~ 1765년 8월)
윤시동(尹著東) (1765년 8월 ~ 1766년 6월)

라 고초에 시달렸다. 18세기까지 제주도의 진상물은 주로 목자(牧子), 포작인(浦作人), 잠녀(潛女), 약한(藥漢) 등의 고역 담당자들에 의해서 직접 충당되었다.⁴⁷⁾ 조정철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 앞서 제주 관원들이 유배인 또는 제주 민중에게 가한 폭력에 집중했다면, 여기에서는 온전히 제주 민중의 관점에서 부역의 폐해에 대해 기술하였다.

[9]

황구첨정에다가 백골포 부과하니,
 부역 이름 편향됨이 이 섬에 많았도다.
 백 명 공인의 여섯 가지 고통과 세 가지 보위는
 지금 하소연할 데 없으니 어이하면 좋을 손가.
 黃口籤丁白骨布 役名偏向是州多
 百工六苦與三衛 無告如今奈爾何

[原註] 배의 키잡이로부터 말총공[鬃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장⁴⁸⁾들을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다. 보재기[鮑作],⁴⁹⁾ 목자(牧子),⁵⁰⁾ 유군(遺軍), 배를 부리는 격군[楫楫], 답한(沓漢)⁵¹⁾, 지장(紙匠)을 일러서 여섯 가지 고역이라 한다. 갑사⁵²⁾와 무학, 정로위(定虜衛)⁵³⁾를 삼위라고 이른다. 기타 역의 이름

- 47)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進上)의 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141면.
 48) 공장(工匠): 공방에서 연장을 가지고 물품(物品) 만드는 일을 전문(專門)으로 하는 사람.
 49) 포작(鮑作): 전복 따는 사람을 가리킨다. 1601년 제주에 어사로 왔던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포작(鮑作, 보재기)들이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많아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섬을 도망친다”고 나와 있다. 포작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0) 목자(牧子):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경영하는 목장에서 우마(牛馬)를 먹이던 사람.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남도영, 『조선목자고(朝鮮牧子考)』, 『동국사학』 (8권), 동국대학교사학회, 1965;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역사문화학회, 2001.
 51) 김동진, 『18, 19 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권), 1993.

도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요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다.⁵⁴⁾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포(白骨布)의 과도한 부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섯 가지 직역과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주도는 부역에 종사하는 종류도 매우 많았는데, 그중에 육고(六苦)와 삼위(三衛)를 주로 말하고 있다. 육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6개의 직역, 삼위는 군대와 관련하여 고단했을 3종류의 직책을 부르는 명칭이다.

조선 시대 제주 지방에는 소위 육고역이라는 계층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따랐다. 즉 본래는 목자(牧子), 답한(沓漢), 선격(船格), 과직(果直), 잠녀(潛女), 포작(鮑作)을 지칭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牧子), 포작(鮑作), 지장(紙匠), 유군(遺軍), 답한(沓漢), 선격(船格)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 목자(牧子), 방군(防軍), 과직(果直), 선격(船格), 답한(沓漢) 혹은 포작(鮑作), 답한(沓漢), 목자(牧子), 방군(防軍), 선격(船格), 아병(牙兵)을 지칭하였다.⁵⁵⁾ 김동전의 논문에서 18세기 후반의 육고역(六苦役)의 근거로 『備邊司謄錄』 178책(冊), 정조(正祖) 15년, 2월 20일 조를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육고역과 조정철의 육고(六苦)가 정확히 일치되는 점이 흥미롭다. 조정철은 당시 백성들을 전방위로 괴롭혔던 실제로 육고와 삼위를 정확하게 포착해 내었다.

[10]

제주도 책략도 없으면서 억지로 피를 내서

개정함은 명분이 뇌물수수 위해서 필수적이라 했네.

괴로워서 쉬고 추진한 일 피하려면 모두 뇌물 써야 하니,

52) 갑사(甲士): 고려 시대에는 군인 일반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시대 부병제에서는 양인 농민 가운데에서 부유한 자들로 갑사를 뽑았음.

53) 정로위(定虜衛): 조선 시대 때 야인(野人)의 침입(侵入)에 대비하여 설치한 군대(軍隊).

54) 自柁工至繫工, 各色工匠, 指不勝僕. 鮑作牧子遺軍船格沓漢紙匠, 謂之六苦役. 甲士武學定虜衛, 謂之三衛. 其他役名甚多 民不堪徭故云.

55) 김동전, 앞의 논문, 1995.

우황과 빈패와 산호이도다.

無才無畧強生謨 釐正名爲潤豪須

苦歎避趨皆有賂 牛黃蟻貝與珊瑚

[原註] 부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관리들이 부임을 하면,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서 부역의 문제를 혁파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우진이 정의현감이 되자 옛날의 제도를 대폭 변화시켜서 대리정(大釐正, 크게 개정함)이라 하였으나, 공사가 도탄에 빠지고, 이정(釐正)하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만 갑작스레 큰 부자가 되었다.⁵⁶⁾

고된 부역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있기는 했던 모양이다. 이우진이란 사람이 정의현감에 부임하여서 이 문제를 혁파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개악(改惡)이 되었다. 백성들은 부역을 면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우황이나 빈패, 산호 따위를 뇌물로 바치게 되어 하급 관리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었다.

[13]

공사(公私)의 소와 말은 각자 무리를 이루니,

비단 구름처럼 흩어진 것이 천만 개 무리이네.

감목(監牧)⁵⁷⁾은 망아지 다스린 것이 오히려 직책인데,

지금의 태수는 흑시라도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⁵⁸⁾

公私牛馬各成屯 雲錦離披千萬羣

監牧攻駒猶職責 今之太守儻能勤

56) 本州以役名難充, 每官長新莅之後, 各出意見, 移來移去, 其弊紛紜. 辛丑李羽晉爲旌義縣監, 大變易舊制, 名曰大釐正. 公私塗炭, 釐正監色, 猝成巨富. 余來在羽晉已歸之後, 而民口常嗷嗷, 故紀實.

57) 감목(監牧): 국가에서 설치한 목장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종6품 무관직(武官職).

58) 原註: 元至元中, 以耽羅, 在房星分野, 置牧場放牛馬, 遣達魯花赤以監之, 後雖還屬於我, 而至今尚稱國屯馬曰元屯馬. 濟州六所·旌義二所·大靜二所, 又有牛島.

우마류(牛馬類)는 주요한 진상품에 속한다. 그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13], [14], [15]번 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쓴 바 있다. [14]번 시에서는 1600년 말 오백 필을 조정에 헌납하여 헌마공신(獻馬功臣)으로 감목관(監牧官)이 된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의 이야기를 하였다.⁵⁹⁾ 특히 [15]번 시의 원주(原註)에는⁶⁰⁾ 평소에 말을 방목하다 수만 명의 군정(軍丁)을 동원하여 목장에 가두는데, 겨울 추위에 보통 6-7일이 소요되어 노숙을 하다 얼어 죽는 사태가 속출하였다고 나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제주 목사의 행적 능력에 따라서 백성들의 노고가 경감되거나, 혹은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시에서는 제주 목사가 이러한 문제를 다 다스려서 백성들의 고역(苦役)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32]

나무는 짝이 나지 않고 말은 꼬리털 없이
백성들 입으로 시끄럽게 분개하네.
하물며 백성들로 하여금 도랑 구덩이 메웠으니,
누가 장차 너의 죄를 귀신에게 고해 줄까.

木無粵犢馬無尾 民口嗷嗷尙憤悱
況使蒼生溝壑填 誰將爾罪告神鬼

[原註] 이명운은 크게 탐욕을 부려 백성들의 고택(膏澤)을 파내는 것이 진

59) [14] 旌城西面衣歸村, 騷裏驂騶幾匹存. 獻馬尙傳金萬鎰, 銅章世世是君恩. 原註는 다 음과 같다. 金萬鎰, 濟州旌義人也. 往濟州, 踰漢拏山, 有一馬, 號而在傍, 遂牽還其居, 一日不知所去. 忽數朔之後, 率入十餘匹牝馬而還. 年年生雛, 三四年, 過千頭駿馬, 遂獻于國, 卽山馬是也. 家甚殷富, 官至都總管. 其子孫世世, 爲山馬監牧官.

60) 原註: 山馬放在漢拏山. 子午卯酉年, 牧伯到橋來村, 動三邑男丁, 無老少, 按籍悉起, 自白鹿潭驅馬, 納於三場, 一日上場·二日針場·三日鹿山場. 於是乎黠闕, 烙以山字印. 驅馬之際, 數萬軍丁, 一時打圍, 層崖絕壁, 邃谷深林, 無不搜覓. 故山猪獐鹿, 渾被驅下者, 不可勝數, 華蟲則殆至山積, 故大獵. 而歸時值冬寒, 動費六七日, 露處山野之故, 民之死亡相續, 不堪其苦. 己亥牧使金永綬, 從民願築間場. 於中山水草最好處, 以防馬之散處. 上山隱險之地, 使牧子, 逐年驅點, 一如元屯馬例, 萬姓便之, 山馬亦無闕失之患矣. 辛丑御史朴天衡偏聽牧子之言, 啓聞毀撤間場, 又復間三年動軍驅獵, 故末句云云.

주, 대모(瑋瑁), 산호(珊瑚), 앵무조개[鸚鵡], 우황(牛黃), 녹용(鹿茸), 치자(鬍子), 양태(涼臺)의 종류들은 다만 수 만금으로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재산이 심하게는 탕진하고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오히려 계곡과 같은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 공사 둔마의 말꼬리와 갈기를 다 잘라내었으며, 산 나무로서 늙어 무늬가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져다가 혹은 판자를 만들고, 혹은 그릇을 제조하니, 한라산 한쪽 면의 산유자[山柚], 비자(榧子), 용목(龍木), 가시(佳柴) 2년생 등 진기한 나무와 고목은 거의가 벌거숭이가 되었다. 섬사람들이 모두 그 고기를 씹어 먹으려고 할 정도였다. 윤공이 영에 이르러 이명운의 죄를 성토했었는데, 그 계를 올린 가운데에 나무는 썩이 안 나게, 말은 꼬리가 없게 등의 구어(句語)가 있었다. 영조가 크게 진노하여서 종성에다 이명운을 유배 보내고 유진하를 호남병마절도사에 제수하였다. 임금의 결단이 크시니 만백성들이 기뻐서 손뼉을 쳤지만 섬의 백성들은 이명운을 주살하지 않은 것을 지금껏 분개하였기에 사실을 기록한다.⁶¹⁾

이명운은 조정철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명운 개인의 치부(致富) 때문인지, 진상(進上)을 하려는 목적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는 진주, 대모(瑋瑁), 산호(珊瑚), 앵무조개[鸚鵡], 우황(牛黃), 녹용(鹿茸), 치자(鬍子), 양태(涼臺), 말총, 말갈기 등을 닦치는 대로 거두어 들였으며, 나무로 판자(板子)나 그릇 등을 제조키 위해서 산유자[山柚], 비자(榧子), 용목(龍木), 가시(佳柴) 등도 수거해 갔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가산을 탕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에는 진상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들이 존재해 왔고, 그들은 정해진 품목을 진상(進上)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61) 李明運, 大貪饕, 浚民膏澤, 蟻珠瑋瑁珊瑚鸚鵡牛黃鹿茸鬍子涼臺之屬. 不啻累鉅萬計, 民產, 甚至蕩竭, 猶未充豁壑之慾. 公私屯馬尾鬣盡割, 山木之老而有紋者, 幾皆所取, 或作板子, 或造器皿. 擎山一面山柚榧子龍木佳柴二年等珍材古木, 殆乎濯濯, 島人舉欲食肉. 尹公到營聲明運之罪, 其啓中有木無粵檠馬無全尾等句語. 英廟大震怒, 竄明運于鍾城, 以柳鎮夏授湖南兵馬節度使. 聖斷廓然, 萬姓歡抃, 而島民以明運之不誅, 至今憤悱云, 故紀實.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관장(官長)들이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정철은 이러한 백성들의 신고(辛苦)를 외면하지 않고 시화(詩化)해서, 제주 백성들의 실상을 밝히려고 애썼다.

V. 탐라잡영의 문학사적 의의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乙酉二月二十八日, 宿櫻山之成歡驛, 濟州貢藥人金克修亦來, 因夜話, 畧問風土物產, 遂錄其言, 爲賦七羅歌十四首」(1465년)이다. 주된 내용은 개인적 감회, 전설, 역사, 토산물, 지리, 환경, 풍속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장 많은 편수는 풍속과 토산물에 대한 것이다.

여염집 자식들이 태학에 유학하여
학문으로 많은 인재 길러짐 즐겁도다.
넓은 바다라고 어찌 지맥이야 끊어졌으랴
잘난 인재 이따금 문과에도 올랐도다.

閭閻子弟游庠序 絃誦而今樂育多
滄海何曾斷地脈 翹材往往擢巍科

뱀을 숭상하는 풍습에 대해 비판한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⁶²⁾, 풍속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주의 인재들이 학문을 닦아 길러지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그 인재들이 문과에도 합격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김종직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 들어서 추체험(追體驗)으로 지었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으로 다루면서도, 이질적인 풍속과 풍토를 호기심어린 시각으로

62) 庭除草際遇錢龍,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吳公在竹筒.

다루고 있다.

최부(崔溥, 1454~1504)의 『耽羅詩三十五絶』(1487년)은 지리, 전설, 역사, 풍토, 개인적 감회, 풍속 등을 다루면서, 자신의 직접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적 감회 중에서 제주까지 가는 도중의 감회를 자세히 적고 있으며, 역사에 대해서도 특히 많은 편수를 할애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길 가는 이도 향교에 가서 공자께 배알하고,
 유생들은 읊을 하며 명륜당에 맞이하네.
 누가 알았으랴. 만 리 밖 너른 바다 밖에
 이처럼 예의 바른 고장 있을 줄을
 路人杏壇謁素王 青衿揖我明倫堂
 誰知萬里滄溟外 有此衣冠禮義鄉

그의 시에 나타난 제주는 신선이 사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섬으로 그려져 있다. 앞서 김종직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제주는 육지의 유도(儒道)와 단절된 야만의 땅이나 문화의 변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풍속에 대해서도 다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두었지만, 그것을 두 문화의 차이로 보았을 뿐 차별적 시선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김종직과 최부의 시들은 김정(金淨)의 『濟州風土錄』(1521)보다 앞선 시기에 지어졌고, 김정의 기록은 훗날 제주에 대한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시나 풍토기 등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여, 제주에 대한 편견에 한 몫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2]

정의현 유생(儒生) 몇 몇 사람들은
 비록 학업에 힘쓴다지만 하나같이 얼마나 우매하던가.
 북쪽으로 중원을 배우는 것은 비록 얻지 못하나,
 정사(正邪)는 마땅히 굴림(橘林)의 유생에게 질정해야 하리.

旋義青衿三五徒 縱云勤業一何愚
北學中原雖未得 正邪宜質橋林儒

조정철의 이 시는 앞서 언급된 시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물론 그가 앞선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르고, 유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긴 하다. 조정철은 제주의 유생들을 싸잡아서 우매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제주에 대한 그의 시각을 대변하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조정철의 작품은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의 「耽羅雜詠」(22수)과 유사점이 적지 않다. 조관빈은 지리, 역사, 신화, 산물, 풍속, 풍토 등을 주로 다루었고, 특히 풍속이나 풍토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조정철이 조관빈의 작품을 숙독했다는 점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다. 조정철의 작품은 조관빈의 「耽羅雜詠」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점이 적지 않다.

조정철은 지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히 썼고, 풍속과 실제 사건 등에 집중했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제주 연작사에서 보이는 경외와 호기심에서 벗어나, 원주(原註)를 통해 상세하고 풍부한 기록을 남겼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제주사(濟州史)를 복원했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유배인의 신분임을 감안했을 때 제주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그려냈다고보다, 경멸과 폄훼를 주로 하여 부정적인 시각 일색이었던 점은 일정한 한계로 남는다.

VI. 결 론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의 「耽羅雜詠」 33수는 제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게다가 원주(原註)에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여러 편의 제주 관련 연작시가 있었지만, 조정철의 시는 그 숫자나 내용면에서 다른 작품과 다른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풍속과 풍토에 대한 기록은 작가의 제주에 대한 시선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조정철은 풍속과 풍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풍속에 대해서는 차이를 인정치 않고 극단적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조정철이 유배객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함의를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준다.

제주 관원들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남겼다. 보통의 한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관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관원들의 실명과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로 짓고, 저간의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원주(原註)까지 제시했다. 이 기록들은 실제 유배객이나 제주 민중들이 관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 민중들은 진상품을 마련하느라 가혹할 정도로 진상(進上)과 부역(負役)에 시달렸다. 실제 공문서를 통해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문학 작품에서 이러한 사정을 그려낸 경우는 많지 않다. 그는 이러한 백성들의 신고(辛苦)를 외면하지 않고서, 제주 백성들의 실상을 밝히려 애썼다.

보통의 제주 관련 연작시에서 제주를 경외와 호기심으로 다루었다면, 조정철의 경우 온전히 실제 사건에 근거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입도인(入島人)의 시선에 치우쳐 제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 관련 연작시의 역사와 전변(轉變)에 대한 문제로의 확장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투고일: 2011.01.20일 / 심사일(1차: 02.08일, 2차: 02.16일) / 게재결정일: 02.16일>

참고 문헌

- 김상헌(金尙憲), 『南槎錄』
김윤식(金允植), 『雲養集』
김 정(金 淨), 『濟州風土錄』
김종직(金宗直), 『佔畢齋集』
남구명(南九明), 『寓菴集』
정 온(鄭 蘊), 『桐溪集』
조관빈(趙觀彬), 『悔軒集』
조정철(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이 건(李 健), 『濟州風土記』
이원진(李元鎭), 『耽羅誌』
이 증(李 增), 『南槎日錄』
임 체(林 悌), 『南溟小乘』
정 조(正 祖), 『弘齋全書』

강혜선(2007), 『유배객 세상을 알다』, 태학사.

김경옥(2001),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역사문화학회.

김나영(2008),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전(1993), 『18, 19 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권).

김동전(1995),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김영돈(2002), 『한국의 해녀』, 민속원.

김영길(1990),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중(1990),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익수(2006),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 김정숙(1990), 『濟州島海女服研究』, 『탐라문화』(1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남도영(1965), 『조선목자고(朝鮮牧子考)』, 『동국사학』(8권), 동국대학교사학회.
- 박동욱(2007),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17집.
- _____ (2010),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 50집, 태학사.
- _____ (2010),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7호.
- 박찬식(1997),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進上)의 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 심재우(2009), 『극과 극, 조선시대 유배의 재발견』,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 양순필(1982),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형택(1998),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회연구』 21권, 한국한문학회.
- 정우봉(2006), 『아침은 언제 오는가』, 태학사.
- 조원환(1994), 『양주조씨사료선집』, 보경문화사.
- 최기숙(2007), 『조희룡, 고통 속에서 피운 성찰의 꽃』, 『역사, 길을 품다』, 글항아리.
- 홍순만(1991),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Abstract

A Study on Tamra Japyeong(Songs of Tamra)
of Jo Jeong-cheol

Park Dong-uk*

The childhood name of Jo Jeong-cheol(趙貞喆, 1751~1831) is Seonggyeong and Taeseong and his pen name is Jeongheon and Daereung. He was not widely know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up to now but I have been interested in and studying him. He was banished to Jeju for 27 years in his life in exile for 29 years as the person who lived in exile for the longest period during Joseon period. His collection of works "Jeongheonyeonghaechogamrok(靜軒瀛海處坎錄)" described only about his experience in exile. So it is very unusual case. "Tamrajapyeong(Songs of Tamra)"(耽羅雜詠) in "Jeongheonyeonghaechogamrok(靜軒瀛海處坎錄)" comprised 33 works. It is worth noticing Tamrajapyeong because it contained detailed information on Jeju(Tamra in the past) in terms of numbers and contents.

Description on customs and climates in Jeju also contained the viewpoints of the writer on Jeju. So it is very important. Jo Jeong-cheol very rigorously criticized customs and climates of Jeju and also wrot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 employees of Jeju. The records in Tamrajapyeong enabled to identify how the government employees dealt with the residents of Jeju and exiles. Furthermore, the residents of Jeju were severely suffered from compulsory labor and preparation of specialties to be presented to the kings or high-ranking officers. Jo Jeong-cheol tried to reveal the reality of Jeju residents' life without ignoring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hardship of Jeju residents.

Through-composed poems related to Jeju generally had awe and curiosity on Jeju. However, Jo Jeong-cheol accused of the irrational reality based on the actual events in Jeju. Nevertheless, it would be his limit that he observed Jeju with the thoroughly one-sided viewpoint of a migrant to Jeju island.

Key Words : Jo Jeong-cheol, Jeongheonyeonghaechogamrok(靜軒瀛海處坎錄), Exile, Late Joseon Period, Jeju Island, Japyeong(songs)

